

## 재해(災害)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양계인(養鷄人)이 됩시다



**박 옥 룡**  
본회 전북도지회장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양계인 모두에게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전라북도 양계산업을 돌이켜 볼 때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초 정읍, 고창, 부안 지방의 폭설로 인하여 채란·육계·종계사육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출발을 기약했지만 2006년 11월 22일 전북익산 합열 종계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양계농가들의 숨통을 조이고 말았습니다.

1차 SI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국 확산을 방지하고자 협회와 행정방역당국 모두가 힘을 모아 SI 차단방역에 노력하여 한숨 돌리는가 했으나 제2차 발생으로 전라북도 양계인들은 또 한

번 놀라야만 했고 농가의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양계산업에 미래를 버리지 못한 농가와 협회 방역당국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단방역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2006년 12월 10일 김제시 공덕면 메추리 사육농가의 3차 SI 발생은 또 한번 도민들은 물론 전국 양계농가, 나아가서는 전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김제시 공덕면 인근에 접해있는 종계·산란계·육계농가들과, 특히 산란계가 집중사육되고 있는 김제시 용지면 양축농가들은 밤을 낮으로 알고 살아야 했으며 합열 지역이나 공덕면 지역의 SI 발생지점 500m내에 접한 오염 위험지역내의 종계·산란계·토종닭과·메추리 사육농가들의 살처분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했던 가슴 아픈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한편 익산 합열지역에서 1·2차 SI 발생시에도 유관기관을 찾아다니며 닭고기와 계란 소비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도 했고 언론 당국에도 SI 발생에 대한 매물작업 현장을 화면에 자제해 주

십사하고 애원도 했습니다. 또한 전북도지회 산하 회원농가들은 계란유통협회 전북지부 유통인들과 함께 계란소비촉진운동을 벌이기 위해 전주와 익산 군산 3개시를 돌며 재래시장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계란 3,000여판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현장에서 계란을 이용한 무료 시식회 등으로 시민들에게 계란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몸부림쳐 봤지만 육계값은 다소 인상될 뿐 계란값은 시 발생시점과 비교하여 상승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에 대한 원인 규명은 현재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강 하구둑의 겨울 철새가 원인이겠지 했지만 FAO(세계농업식량기구) 전문가들도 이번 시 발생원인이 철새에 의한 것인지 확실히 규명 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서 전북도내 양계농가들의 마음은 사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시 전염원인을 찾아내어 농가들이 마음 놓고 양계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시로 피해를 당한 현지 농가들을 찾아보면 모두가 양계산업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보상문제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살처분되는 수수만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실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실망하는 농가는 종계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18~28주령 사이의 종계를 살처분 하고나니 생계가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가득 합니다. 또한 산란계 농가에게 이왕 지원을 해준다면 시의 병원체 잠복기간인 최장기간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지회로서 앞으로 양계농가들의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수용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농가들이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란 말이 있듯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전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아픔과 상처도 많이 남겼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양계협회에서도 살처분한 농가들의 고통을 파악하고 양계산업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한걸음 농가에게 다가감으로서 협회의 위상도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재해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365일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열성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시의 원인이 철새인지 종계인지 아니면 다른 전염원이 있는지 방역당국과 함께 연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은 축산인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지난해 시로 상처받은 농가들은 축사에 닭을 넣지 못하는 가운데 정해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익산 함열지역 농가들과 김제지역 양계협의회 회원들은 외출도 없이 3개월을 시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수고하신 농림부 당국과 방역기관 행정당국은 물론 전국양계 농가들에게 전라북도의 양계업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서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양계**